

<중국팀>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 동향과 전망

■ 중국 주가지수가 '15년 6월 12일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약 한 달간 급락세를 보였으나, 7월 9일 이후 등락을 반복

- 상하이종합지수는 6월 12일 5,166에서 7월 8일 3,507로 32% 가량 하락
- 선전종합지수도 6월 12일 3,14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7월 8일 1,884로 40% 가량 하락
-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 모두 7월 9일 상승세로 돌아선 뒤 각각 4,000선과 2,300선을 회복했으나 7월 27일에 급락세를 재현
 - 7월 2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약 8.5% 하락한 3,726을 기록했으며, 선전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7% 하락한 2,160 기록

그림 1. 상하이종합지수



자료: CEIC

그림 2. 선전종합지수



자료: CEIC

■ (원인) 2014년 하반기 이후 주가의 지속적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로 중국 당국이 여러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면서 증시 급락을 초래했으나, 이러한 급락세를 막기 위해 다시 여러 조정 조치를 실시하면서 최근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6월 12일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증감위”)는 마진거래¹⁾와 공매도²⁾ 규모를 순자본의 4배로 제한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함.

1) 마진거래(신용거래)란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사는 방식을 말함.

2)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임.

- 동 규칙 초안은 마진거래와 공매도를 제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위축시켜 최근 몇 개월간 이어진 중국 증시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증감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15년 들어 기업공개(IPO)³⁾를 대거 승인한 바, 이에 따른 유동성 경색과 맞물려 증시 침체가 더 심화된 것으로 평가
- 증감위의 마진거래 제한 규칙 초안이 발표된 직후인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만 총 25개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가 약 416억 3,300만 위안에 달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었음.
- 증시의 추가적 급락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적극적 조치로 7월 9일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조치가 감소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 심리 악화로 27일 급락세가 재현된 것으로 분석
 - 중국 정부는 주가의 지속적 급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신용거래 규제 완화, △신규 IPO 잠정 중단, △국유기업 지분 매각 중단, △상장기업 임원에 대해 자사 주식 매입 권고 등의 증시 부양 조치를 취함.
 - 그러나 IMF가 7월 24일 중국에 시장개입 철회를 권고하면서, 위안화의 SDR 편입 심사를 앞둔 중국의 시장 개입 조치가 감소되었을 가능성 대두
 - * 이에 따른 투자자 심리 악화가 27일 급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전망) 중국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중국 내 금융 불안을 초래할 만한 수준까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주가지수는 여전히 2014년 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금융 불안을 야기할 만한 수준까지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7월 상하이종합지수가 2,075였던 것에 비해 2015년 7월 29일에는 3,789를 기록해 여전히 2014년 하반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선전종합지수 또한 2014년 7월 1,134에 비해 2015년 7월 29일에는 2,199로 2014년 하반기 대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상하이와 선전 증시 모두 27일 급락 후 29일에는 다시 소폭 상승
 - 중국은 증시 침체뿐만 아니라 버블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3) 신규상장: 새로운 종목의 유가 증권을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의 증시 급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채보다 외화저축이 더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음.
 - 주가 급락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를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최근 회복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상쇄 가능
 - 중국 국민의 금융재산 중株式이 차지하는 비중(20%)이 아직 크지 않아 주가하락이 개인재산이나 주민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株式(2014년 2.6% 차지)보다는 은행대출 위주로 조달함.
- 단, 장기적으로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자료: 인민망, 환구망, 봉황재정, 증권시보, Global Insight 등 >
(조고운 연구원)